人間發達硏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4. Vol. 1, No. 1, *25－38*

人間發達 硏究를 위한 人類學的 方法의 適用과 限界 : '文化와 人性' 學派를 중심으로

전 경 수
서울대 인류학과

본고는 아동기와 사춘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류학적 연구의 경향들을 소개함으로서 인류학적인 연구의 성과들이 '인간발달' 연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며, 동시에 인류학내의 '문화와 인성'학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피력함으로서, 인간발달학 분야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인류학적 연구의 적용과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정도의 의도를 갖고 있다. '문화냐, 인성이냐'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Gestalt라는 그림 앞에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문화 와 인성'으로 낙착된 셈이다. 양자는 인류학 내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될 수 없는 관점으로 고려되는 구도가 마련되면서,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 계기를 지향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적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심리인류학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인류학자들에 의한 인간발달이라는 주제는 수단의 차원이 아니라 목적의 차원에서 연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싶다. 인간과 유인원에 대한 생물학적인 차원의 연구결과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심리인류학 · 문화와 인성 · 인간발달 · 문화간 비교론

1. 心理學으로부터 脫出 몸부림

인류학 내에서 심리인류학의 분야를 다루는 영역은 흔히 '文化와 人性'(culture and personality)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전에 원시 심리학(primitive psychology)을 언급한 논의들(예를 들면, Malinowski와 Boas)에서는 '인성'이라는 용어가 심각한 의미로 등장한 적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심리인류학이라는 용어가 '문화와 인성'이라는 용어와 대등한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원시 심리학이라는 것과 프로이드의 영향을 기반으로 한 분석심리학적 인류학(psychanalytic anthropology)의 경향 및 인지인류학(cognitive anthropology)의 경향이 광의의 심리인류학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문화와 인성'학파로 분류될 수 있는 심리인류학의 경향에 국한하여 논의를 할 것이다.

스스로 논의의 범위를 '문화와 인성' 학파내로 제한하겠다는 전제를 한 것은 본고의 논의를 '인간발달 연구'의 경향과 연관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적인 의도에서 이고, 그러한 의도는 인류학내에서 인간발달 과정의 아동기와 사춘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성과를 만들어낸 경향인 '문화와 인성'학파의 논의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발달'이라는 주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본고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동기와 사춘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류학적 연구의 경향들을 소개함으로서 인류학적인 연구가 '인간발달' 연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며, 동시에 '문화와 인성'학파의 한계점을 필자 나름대로 피력함으로서, 인간발달학 분야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인류학적 연구의 적용과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정도의 의도를 갖고 있다.

환언하면, 나는 인류학적 입장에서 전개되어온 '문화와 인성'연구 중에서 주로 아동기와 사춘기에 관한 연구를 해온 부분에 한정하여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작업에만 한정할 것을 본고의 논의범위로 삼고 있다.

인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인류학자들은 준거틀이란 점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상반되는) 경향의 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인류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미 제시되고 있던 이론적인 정향들 중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같은 심리결정론이나 지리학에서 출발한 환경결정론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초기의 인류학자들이 그러한 이론적 정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학자들은 스스로 만든 '문화'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옹립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초유기체적인 존재라는 인식(Kroeber, 1917)을 하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인류학자들은 문화결정론이라는 아이디어를 심어가기 시작하였다. 개인차라는 것은 일탈적인 것일 뿐이고, 한 사회의 문화는 개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 개인은 어떻게 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기의 인성형성과 사춘기에로의 인성발달이라는 주제에 인류학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환언하면,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다른 분야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결정론 시리즈'에 걸맞는 또 다른 형태의 결정론인 문화결정론을 옹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와 인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연구를 위해서 인성이라는 장르를 이용한 셈이며, 사실 인류학자들의 이 전략은 환경결정론과 심리결정론 양자를 다 거부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을 마련해준 셈이다. 심리적 현상인 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문화의 지배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라는 논리의 전개는 심리결정론에 대해서 역공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프로이드의 외디푸스 가설에 대한 말리노브스키의 반박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문화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인성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개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문화라는 도장에 의하여 동일한 모습으로 찍혀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연구실이라는 실험실이 아니라 '現地(field)라는 실험실'을 통해서 실증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둘째, 이상과 같은 문화결정론은 즉각적인 반대의견을 받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집단적인 문화의 탓으로 돌리는 입장과 개인의 정신적 조직의 탓으로 돌리는 입장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도이지"(Sapir 1949: 194), 문화라는 도장이 찍어주는 대로 개인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만약 문화결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입장은 문화를 문화로 설명해야 하는 순환론법에 휘말리게 된다는 약점도 지적될 수 있다. 문화적인 과정에서 문화라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역할이 중요할 뿐이라는 주장이 개진됨으로서 개인의 인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연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인성연구 그 자체가 문화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성구조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그만큼 더 있어야 할 것이며, 문화연구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단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독특한 경험의 형상인 인성 개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Sapir, 1949: 201-203). 문화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연구대상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두되면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초유기체설 또는 문화결정론으로부터 개인의 존재에 의해서 문화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인성론이 대두하였다. 개인의 집적에 의한 사회집단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집단의 구조적 원리인 문화는 궁극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개인이 궁극적으로 문화의 소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은 의미를 추구하고 창조하는 하나의 체계라는 인식에 의해서 문화의 성장과 기능 그리고 통합을 이해할 수 있다"(Bock, 1980: 61).

알프레드 크로버와 에드워드 사피어의 입장 차이는 후일 문화이론을 전개하는 두가지 흐름의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크로버의 입장은 類型論으로, 사피어의 입장은 脈絡論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인류학사에서 전개되었다(전경수, 1994: 23). 전자의 입장은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성 즉 문화의 산물로서의 인성만을 언급한 것이지, 인성을 연구하거나 인성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해서 후자의 입장은 인성연구를 통해서만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양자는 인간이해를 위한 '문화론'과 '인성론'으로 대별될 수 있기도 하다. 사실 초기의 인류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여러가지 종류의 몸부림들 중에서 심리학 이론들로부터의 탈출 몸부림에서 빚어지는 헤프닝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심리학으로부터의 탈출 선언부터 시도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심리학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해도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 신세이기 때문에', 심리학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반격이었다.

2. '兩다리 걸침'

환경결정론으로부터는 비교적 쉽사리 탈출에 성공한 인류학자들은 심리학으로부터의 인연에 의하여 발목 불잡힌 상황이 되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문화결정론을 주장하던 크로버와 같은 사람들이 내세운 '유형'(pattern) 또는 '형상'(configuration)과 같은 개념들은 이미 1912년에 젊은 심리학자들(Max Wertheimer, Kurt Koffka, Wolfgang Kohler)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Gestalt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원자적 관점을 피하고 총체적 관점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크로버나 사피어 등 모두에게 마찬가지였다.

'문화냐, 인성이냐'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Gestalt라는 그림 앞에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문화 와 인성'으로 낙착된 셈이다. 양자는 인류학 내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될 수 없는 관점으로 고려되는 구도가 마련되면서,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 계기를 지향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적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심리인류학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다.

'문화와 인성'학파는 네가지 정도의 이론적 정향으로 발전한 바 있다. 개별적인 이론적 정향과 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표가 아래의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심리인류학'이나 '문화와 인성'이라는 주제를 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아래의 것은 복의 책에서 제시한 그림(Bock 1980: 59)의 일부를 다른 책들과 조정하여 만든 것이다.

理論的 定向	主 硏究者
類型論 (1920－1940)	Benedict, Mead, Hallowell
基本-最頻 人性論 (1935－1955)	Kardiner, Linton, DuBois, Wallace
國民性 硏究 (1940－)	Kluckhohn, Bateson, Hsu, Gorer, Caudill
文化比較論 (1950－)	Whiting, Spiro, LeVine, Spindler, Edgerton, D'Andrade

1) 유형론

1921년 컬럼비아대학 보아스(Franz Boas)의 연구실에서 인류학을 시작한 베네딕트는 1923년에 "北美 原住民의 守靈 槪念"(The Concept of the Guardian Spirit in North America)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다. 특수전파의 개념과 역사적 특수주의에 입각하여 북미 원주민 문화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보아스의 영향이 그녀의 논문에 반영되기도 했지만, 베네딕트는 자료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이해를 도입함으로서 1934년에 출판된 '文化의 諸類型'(*Patterns of Culture*)이 등장하는 예고를 한 셈이다. 그녀의 유형 개념은 철저한 Gestalt의 노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The whole determines its parts, not only their relations but their very nature", 〈문화의 제유형〉 중에서). 베네딕트가 유형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용한 네 사회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아폴로니아 유형"(푸에블로 인디언): 이 용어는 니이체로부터 차용된 것으로서 개인은 집단의 전통에 철저하게 복속되어 있음을 말한다. 북미의 남서부에 위치한 사막지대의 푸에블로(Pueblo) 인디언을 모형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이 집단내에서는 행동의 균형이 구가되고, 폭력과 투기 또는 개인적인 오만함 등은 규탄된다. 어릴 때부터 협동과 공동체적 의무가 교육되고, 모든 행위를 위한 통제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식적 구조에 의해서 제공된다. 개인적인 부의 축적은 기피되고, 자원은 전체 사회가 이익을 얻는 방향에서 의식적인 책임을 통하여 조정된다.

"디오니시아 유형"(대평원 인디언): 푸에블로 유형과 정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북미 대평원(Plains) 인디언이 모형이며, 이 용어 역시 니이체로부터 따온 것이다. 폭력적인 경험이 칭송되고, 단식과 고문 그리고 약물복용에 의해서 수령환영을 꿈속에서 추구하려는 행동이 강하고, 전쟁에서 용감성을 보인 개인에게 최고의 위세가 주어진다.

"파라노이아 유형"(도부): 남태평양의 도부(Dobu) 섬사람들은 갈등과 의심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개인들간 뿐만 아니라 집단간의 반복이 심한 곳으로서 도부 사람들은 한 개인의 이익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흑주술(black magic)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도부인들은 항상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여러가지 제도 속에 잘 반영되어서 나타난다.

"메갈로매니아 유형"(콰큐틀): 북서태평양 연안의 자연환경 조건이 좋은 곳에 거주하는 콰큐틀(Kwakiutl) 인디언을 모형으로 하고, 그곳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富의 조작에 관한 특별한 아이디어에 근거한 유형이다. 初入者의 신성광기를 강조하고, 가족집단의 수렵채집 및 어로에 관한 권리와 개인의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항목(노

래, 춤, 이름, 신화, 토템笮 등)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곳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과 집단의 지위와 위세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세는 상속되며, 위세의 소유는 경쟁적인 축제로 알려진 포틀래취(potlatch)를 통한 富의 분배가 담보해주는 방식에 의존한다. 많이 분배하면 많이 분배할수록, 큰 위세를 얻는다는 현상을 들어서 과대망상적(megalomaniac)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베네딕트는 하나의 문화로부터 획득한 "경험적인 특성"을 기초로 개별적인 유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유형을 하나의 형태(type)로 환원시킴으로서 그녀가 의존했던 Gestalt적인 입장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그녀의 〈문화의 제유형〉은 학술적인 저술일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인류학을 "팔기" 위해서도 저술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화'와 '인성'이 '문화와 인성'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추구되는 효시적인 인류학적 작업이었다는 점으로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베네딕트의 작업에 의해서 인성연구의 중요성을 감지한 프란츠 보아스는 심리학으로 훈련을 받은 마가렛 미드(M. Mead)의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이론적인 작업가설로서 '인성이 문화에 반응하는 방식'을 연구하도록 주문하였다. 그에 대해서 미드는 서구사회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비서구 사회에서의 性的 態度와 '思春期의 危機'라는 문제로 관심을 발전시킴으로서 인류학적인 연구의 경향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셈이다. 즉 이전의 인류학자들은 연구대상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으나, 미드는 미국과 서구사회의 위기적인 문제를 비추어보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는 응용사회과학적인 면을 보였다.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서 관행되는 육아 방식과 사춘기의 성적 자유라는 현상을 보면서, 미드는 '미국사회의 사춘기 위기라는 것이 과연 필연적인 과정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스탠리 홀(Stanley Hall)의 사춘기 스트레스 가설—사춘기의 혼란과 불안정은 인간성숙 과정에서 생득적으로 고정된 단계—을 현지에서 검증해보기 위해서 23살의 나이에 미국령 사모아로 갔다. '사모아의 사춘기 소녀와 소년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미국사회에서는 성적 억압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미국사회의 사춘기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성장하고 있는데, 사모아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사회의 베이비 붐에 의한 인구성장은 자연스럽게 사춘기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미드의 사모아 연구는 미국의 문제를 비추어보는 거울의 역할을 함으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획득하였다. 미드의 결론은 미국사회의 사춘기 스트레스는 생물학적인 결과가 아니고 문화적이라는 데 모아졌다. 이것은 그후 벤자민 스포크(B. Spock) 박사에게 영향을 미쳤다(스포크 박사는 미드의 딸의 어린 시절 주치의였음).

문화이론이라는 무거운 주제로부터 출발한 미드는 그 무게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주제를 사모아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라는 준거틀에 맞춤으로서 이론적이기 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의 연구결과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한 셈이었다.

1928년에 실시된 두번째의 남태평양 연구에서, 미드는 애드미랄티(Admiralty) 섬에 거주하는 마누스(Manus)의 인성발달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았다. 마누스의 육아방식은 독특하였다. 어린이의 출생 일년이 되면서, 육아의 주된 책임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더 있게 된다. 부모들은 대체로 어린이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주며, 기초적인 생활양식을 습득한 어린이는 어른의 생활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복과 모방이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기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묵시적이거나 언어형태를 통하

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된다. 미드는 마누스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사회생활을 대별시켜서 관찰함으로서, 어린이의 인성형성과 발달에 어른의 생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한 셈이다.

미드의 세번째 태평양 연구(1931－1933)는 뉴기니의 세 사회(Arapesh, Mundugumor, Tchambuli)로 한정되었고, 연구주제는 주로 性役割이었다. 사모아에서 사춘기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의 문제를 바라다보는 거울로서 뉴기니 사회들을 택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여성이라는 것과 남성이라는 것은 과연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성	미국	아라페쉬	문드구머	참불리
남성	남성적	여성적	남성적	여성적
여성	여성적			남성적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인 남성성 및 여성성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뉴기니에서 발견한 미드는 '태어난 성'과 '만들어진 성'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셈이다. 미국사회에서 남성적(masculine)이라는 이상형은 생물학적인 남성에 걸맞고 여성적(feminine)이라는 현상은 생물학적인 여성에 준하는 것이지만, 참불리에서는 그 현상이 반대로 나타남을 지적하였고, 아라페쉬나 문드구머에서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에 의한 기질(temperament)의 분화가 불분명하게 그리고 두 사회의 비교에서는 상호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타남을 발견함으로서 인성의 차원에서 생물학과 문화가 서로 교차의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참불리에서 미국식의 개념으로 여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는 것이 내포하는 함의는 인성발달이라는 과정에 개입된 文化化(enculturation)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社會化라는 개념이 주로 어린이의 육아와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문화화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동안에 일어나는 인성과정이라고 인식된다(Garbarino 1983). 따라서 뉴기니에서 행한 미드의 성역할 연구는 '문화와 인성' 분야를 사회화의 차원으로부터 문화화의 차원에까지 이끌어 올림으로서, 인간발달의 범위를 사회화의 차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화의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공헌뿐만 아니라 오늘날 페미니즘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미드의 사모아 연구가 다른 학자에 의해서 최근에 심각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Freeman 1983), 그것은 입장과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미드는 사춘기의 소녀들이 주면접 대상이었고, 프리만의 대상자들은 주로 권위가 있는 노인들이었다는 점이 연구결과의 차이를 생산한 주 이유라고 생각된다. 성에 관한 은밀한 질문에 대해서 노인들과 소녀들의 대답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회의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미드의 업적에 대한 프리만의 공격은 일회성의 헤프닝으로 간주되어도 좋을 것 같다.

2) 기본－최빈인성론

베네딕트와 미드를 배출한 컬럼비아대학 인류학과는 1930년대를 통하여 '문화와 인성'학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정신분석학자 아브람 카디너(Abram Kardiner)와 인류학자 랄프 린튼(Ralph Linton)과 코라 듀보아(Cora DuBois)가 컬럼비아에 합세하였다.

카디너는 1935년부터 뉴욕 정신분석학 연구소(New York Psychoanalytic Institute)에서 세미나를 주도하였는데, 그의 세미나는 1940년에 컬럼

비아대학 인류학과의 정규과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린튼은 보아스의 컬럼비아대학 인류학과장직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1937년에 합세함으로서 카디너와 린튼은 基本人性構造(basic personality structure : BPS)의 개념을 만들었다. 이 개념은 문화통합의 핵심위치를 한 문화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소지한 인성들의 공분모에 두고 있다(Kardiner & Linton 1939 : viii-ix)는 주장을 함으로서 문화와 인성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 결과 카디너는 아래와 같은 도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차제도	기본인성	이차제도
:생계 및 주거형태 육아방식	:공유된 불안 방어와 신경성	:종교, 신화 민속

환경에 대한 적응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 사회의 역사적 적응의 결과로서 일차제도를 설정함으로서 생계기술과 사회조직(가구와 공동체 등)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주어진 일차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을 기본인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기본인성은 이차제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차제도는 심리적 투사체계(projective system)로서 이해되었다. 마다가스카르의 타날라(Tanala) 문화를 예로 들어서, 상속에 있어서 형제간 불평등 즉 장자우대 방식으로 나타난 일차제도는 형제간의 반목을 생산하고 억압적인 미움과 복종 등의 기본인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불안과 신경성이라는 기본인성에 대한 투사와 적응 메카니즘으로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조상령들에 대한 공포심이 조상중심의 종교와 민속들을 이차제도로 만들어내게 된다.

카디너와 린튼과 함께 인성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듀보아는 기본인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다더 통계적인 의미가 담긴 최빈인성(modal person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카디너가 고용했던 제보자들의 꿈과 이야기 등을 통한 傳記的이고 生涯史的인 연구가 다분히 연구자의 인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인도네시아의 알로르(Alor) 섬에 대한 18개월 동안의 연구과정에서 로르샤하 검사(37 사례), 단어관련 검사(36 사례), 포르테우스 미로 검사(55 사례)를 동원하였고, 33명의 소년들과 22명의 소녀들이 그린 그림들도 수집함으로서, '문화와 인성'연구에 방법론상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하였다. 여러가지 기법을 동원함으로서 알로르 사람들의 인성을 밝힘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이라는 점에서 최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러한 연구결과는 대다수의 사람이나 평균적인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

통계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에 힘입어서 각종 심리검사법들이 '문화와 인성'연구에 동원되는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에서 듀보아의 업적은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적인 연구가 안고있는 문제점들과 마찬가지로 과연 인성연구에 양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심도있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구심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3) 국민성 연구

이차대전이 발발하면서, 현지연구를 다니던 인류학자들에게는 더이상 여행이 어렵게되는 상황을 맞았고, 정부측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적성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베네딕트의 일본연구서인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은 이 방면의 대표적인 업적이며, 미드의 지도로 이룩된 영국인류학자 고어(Geoffrey Gorer)의 러시아 국민성 연구의 결과인 '포대기 싸기 가설'(swaddling hypothesis), 그리고 클럭혼(Clyde Kluckhohn)의 러시아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원격방식(culture-at-a-distance)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고, 자료의 대부분은 군사정보 보고서나 문학작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기본인성론의 범주였다고 말할 수 있다.

4) 문화비교론

컬럼비아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인성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때, 예일대학의 인류학과에서는 죠지 피터 머덕(George P. Murdock)과 죤 화이팅(John Whiting)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비교조사(Cross-Cultural Survey)라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후일 '인간관계지역자료'(Human Relations Area Files: HRAF)로 발전하였다. 듀보아가 알로르에서 실시했던 한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는 달리, 머덕과 화이팅은 많은 사회들에서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일반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가설검증 형식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화이팅은 HRAF의 자료들을 검색하여 65개의 사회로부터 육아에 관한 정보들만을 수집한 후,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와 인성형성에 어떠한 관련을 짓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는 특히 고착(fixation)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서, 충분한 만족의 결과가 원인이 된 것을 긍정적 고착(positive fixation) 혹독한 사회화에 의한 것을 부정적 고착(negative fixation)이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화이팅과 그의 조력자들은 육아훈련 관행은 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직들인 "관리 체계"(maintenance system)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리체계 → 육아훈련관행 → 인성변수 → 투사체계"(Whiting & Child 1953: 310)의 순으로 영향관계를 나타낸다는 도식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카디너의 기본인성론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동원된 방법이란 점에서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화이팅은 이 연구에서 고용한 이차자료들이 안고 있는 정확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육아에 관한 보다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회화연구현지지침'(Field Guide for a Study of Socialization)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서 "여섯 문화 프로젝트"(Six Cultures Project)를 발족시켰다. 1954년과 1955년 사이에 여섯개의 연구팀을 결성하여 장기적인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50개 내지 100개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단위로 선정하였고, 개별 연구지역에서 3세에서부터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24명의 어머니가 집중적인 관찰 대상이었다. 어머니들은 표준화된 설문지에 의해서 면접되었고,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찰되었다. 즉 과거에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투사검사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행동관찰과 면접에 치중한 자료수집 전략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엄선된 행동관찰 대상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의존(succorance), 간호(nurturance), 자립(self-reliance), 성취(achievement), 책임(responsibility), 복종(obedience), 지배(dominance), 사회성(sociability), 공격성(aggression). 이렇게 통제된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찰을 한 것은 여섯개의 다른 사회들간의 횡적인 비교(cross-cultural comparison)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개별적인 지역보고서는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1부에서는 개별 지역의 民俗誌的(ethnographic)인 배경(자연환경과 마을의 구성, 가옥의 형태, 기본적인 경제와 사회조직, 가족형태와 종교 등)이고, 2부는 임신과 출산, 유아기와 수유, 초기와 후기의 아동기를 다루는 兒童訓練(child training)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보고서는 1963년에 베아트리스 화이팅에 의해서 편집된 '여섯 문화 : 육아연구'(*Six Cultures: Studies of Child Rearing*)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외에 '여섯 문화의 어머니들'(*Mothers of Six Cultur-*

es(1964)), '여섯 문화의 어린이들'(*Children of Six Cultures*(1975)) 등의 시리즈물이 7권이나 출간되었다. "여섯 문화"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시(the Gusii): 동아프리카 응얀송고(Nyansongo, 케냐)의 부족으로서 일부다처체를 행하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집을 순회하며,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기본이다. 남편은 부인을 택할 때, 자신의 씨족과 전쟁을 했던 씨족으로부터 부인을 구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심정적으로 부인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구시의 속담에, "우리가 혼인을 하는 상대는 우리가 전쟁을 했던 상대"라고 한다. 따라서 결혼식날 신랑측의 친척들은 신부를 향하여 모멸감을 주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적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남편과 부인 사이의 감정적인 불안상태는 부인들 사이의 투기에 의해서 조장되는 부분도 있다. 구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회피관계가 있다. 부자간에 목욕을 함께 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지 말아야 하며, 아버지는 결혼한 아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아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공포스러운 대상이기도 하다. 영아의 수유기간은 대체로 19개월 정도다. 변소훈련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나, 性(sex)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엄격하다.

라즈푸트(the Rajputs): 델리 북부의 칼라푸르(Khalapur)는 북인도의 전형적인 농촌인데, 라즈푸트는 그곳의 지주 카스트에 속한다. 父系血統과 夫居制(virilocality)를 유지하고, 결합가족 가구를 형성하고, 어머니와 아동의 잠자리가 동일하고, 산후 일정기간의 성교금기가 행해진다. 수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조상재사가 중요한 가족의례다. 라즈푸트는 성인식 때, 할례를 행하며, 결혼은 중매방식이다. 라즈푸트의 특징으로는 카스트 제도와 여성격리(purdah)의 관습이다. 이 두 제도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메카니즘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법이 없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방식은 없으며, 어린이들은 배가 고플 때는 언제든지 음식을 요구한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교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깊다.

타이라(Taira): 일본의 오키나와에 속한 한 농촌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평등적이고, 이웃들간의 품앗이와 같은 협동체계가 잘 조직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표현의 하나로서 학교의 육성회 같은 조직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이 일부일처제를 하고 있고, 연애도 행해지지만 대부분의 결혼은 중매방식을 따르고 있다. 산후 성교금기는 없으며, 남편과 부인 그리고 어린이가 한 자리에서 잠을 자며, 배타적인 어머니-자녀 취침방식은 없다. 어린이가 우는 버릇은 생후 4개월내에 형성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달래는 방식을 취한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는 참을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간혹 쑥뜸(moxa)과 엉덩이 때리기 또는 꼬집기와 같은 엄격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가 주 사회화 담당자인 셈이며, 아버지는 어린이와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적다. 네살 또는 다섯살의 어린이가 동생을 업고 다니도록 교육되고, 어린이가 일곱살이 되면 상당한 책임을 부가시키기도 한다. 소년과 소녀 사이에는 성적 공간분리가 엄격히 적용된다.

믹스테칸 인디언(Mixtecan Indian): 멕시코 산토 도밍고의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믹스테칸 인디언은 두 형제의 가족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나, 개별 기본가족들은 자신들의 잠자리와 취사장소들이 구분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어린시절에 아버지와의 접촉이 별로 없지만, 소년은 12살이 넘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머니는 장녀와 함께 모든 살림살

이를 꾸려나가고 나머지 어린이들을 돌본다. 어린이들이 일곱살이 되면, 가정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도록 훈련된다. 여섯 문화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믹스테칸의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장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대신에 자녀들이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믹스테칸에서는 촌락내혼을 하기 때문에, 부인들은 시누이들과 함께 사는 경향이 있고, 어린이들이 그들의 사촌들과 싸움의 상황을 만들 때, 부인들은 자신의 아이편을 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믹스테칸의 말로, "가장 기능적인 사회화는 자녀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싸움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린이가 12살이 되면, 농사일을 하도록 훈련이 된다.

일로코스(Ilocos Barrio): 필리핀 타룽 지역의 일로코스는 기본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기본가족들의 집은 하나의 놀이터(sitio)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네들은 다른 집의 아이들을 잘 보아줄 뿐만 아니라 서로 젖을 먹여주는 경우도 흔하다. 어머니들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어린이들과 보내며, 어린이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잠자리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엄격한 훈련 방식은 없고, 대체로 관용적이다. 평균 이유시기는 두살에서 두살 반 정도에서 일어나고, 어린이의 주변에는 항상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훈육은 부모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인들이 집단적으로 담당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어린이가 세살이 되면서, 가벼운 집안 일을 하도록 교육이 된다. 다섯살이 되면, 소년과 소녀들은 물긷는 일과 불쏘시개를 지피는 일 또는 동생을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성에 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놀이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웃관계의 공동체가 상당히 견고한 사회적 연망이 된다.

오챠드 타운(Orchard Town): 미국 뉴잉글랜드의 인구 오천명 정도의 타운이며, 이곳 사람들은 대체로 침례교 신자들이다.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이 봉급생활자들이다. 다른 사회들과의 비교에 의하면, 오챠드 타운의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따뜻함"을 보이는 반면에,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장 체벌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곳의 어머니들은 가급적 어린이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형적인 기본가족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이곳의 큰 아이들은 모두 학교로 가기 때문에, 집에는 학령이전의 아동과 어머니가 남게 된다. 남편들은 어린이 돌보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79%가 때때로 아이돌보는 일을 하며, 96%는 큰 아이들을 돌본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볼 때에는 시간당 급료를 지불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과잉보호되는 것을 경계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큰소리로 우는 것에 대해서 "폐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의 다른 문화비교연구들과 "여섯 문화 프로젝트"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이 적기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직접관찰에 의존하고 있고, 둘째, 투사검사가 이용되지 않고, 행동이 "인성의 지표"로 이용되었다. 셋째, 어린이 행동이 여러가지의 다른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관찰되었다. 넷째, 문화내적인 변이 뿐만 아니라 문화간 차이에 관한 양적 자료가 집적되었다(Bock 1980 : 210-211). 화이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섯 문화 프로젝트"는 일반화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지만, '문화와 인성'학파들이 만들어낸 民俗誌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작업들이라고 평가된다. 그들의 개별 사회에 대한 민속지들은 다른 사회와의 비교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지지침(Field Guide)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3. 결어 : 새로운 '人間學'을 위하여

인간발달이라는 문제의식을 '단계'적인 현상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계통 또는 개체발달적인 진화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랫 단계에서 윗 단계로의 변화하는 현상을 발달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 진화적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발달'이라는 현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진화적이지 못한 것 같다. 우선 '단계'라는 개념으로 인간발달을 보려고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 같고, 편의상 '단계'라는 개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단계'들 간의 진화적인 발달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매사에 있어서 상대성(relativity)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류학자들은 '단계'마다의 특수한 입장들의 고려에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사춘기에 관한 마가렛 미드의 연구도 性(sex)이라는 문제 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문제 등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사모아에서 행해진 마가렛 미드의 연구가 궁극적으로 사춘기라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후의 삶과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가지의 사회제도적인 차원에 연결되는 문화적인 현상을 겨냥하였던 것 같다. 사춘기라는 현상이 전체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기능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다. 즉 마가렛 미드와 '문화와 인성'학파가 '인간발달'이라는 현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개체나 계통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인들 사이에 기능적인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과정'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인간발달이라는 주제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를 한 인류학자들은 인간발달의 연구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화이론의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아기나 사춘기와 같은 부분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문화비교론자들이 상당한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는 이렇다할 만한 이 분야의 업적들이 생산되지 않고, 대체로 '문화와 인성'학파 또는 심리인류학에 대한 관심은 약세에 놓여있는 것이 현재 인류학계의 현실이다. 그 이유가 심리학이 학문분야 전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감소에서 기인하는지, 인류학자들이 심리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느끼는 흥미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학문외적인 요인들(정책적인 관심의 희박이나 연구비의 지급경향 등)에 의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가지 확실하게 점검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문화와 인성'학파가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연구질문 즉 이론적인 가정이 야기시키고 있는 가능한 문제점들을 일별해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야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들이 이론적인 또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노정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의 순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인성을 연구하던 학자군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가정들은 대체로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연속성 가정으로서, 초기 아동기의 경험, 예를 들면, 수유와 이유 또는 포대기 싸기나 용변훈련 등이 성인기의 인성을 결정한다는 사고다. 유아기 결정론으로부터 연장된 국민성연구는 인간발달이라는 전체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점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개입되는 복잡다단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해볼 때, '세살'과 '여든' 사이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없다는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선정했던 사회들의 '단순성'이 인간

발달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 대부분의 인성 연구자들이 취했던 획일성의 가정이 문제가 된다. 베네딕트와 최빈인성론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것처럼 개별사회들은 한가지의 인성형태에 의해서 특징지워졌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인성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성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셋째, 한 사회에서 발전되고 표준화된 심리투사검사법은 약간의 변조만을 한다면, 어떤 다른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투사적 가정이다. 인간심리의 보편성이라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이 가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편성이라는 것이 만족되기 위한 전단계에서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게 된 것이다. 한 문화에서의 인성형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적용되는 분석법이 다른 문화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용과정에서 대상집단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마치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지능검사를 아무런 걸름장치없이 다른 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생산할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이상과 같은 가정들은 심리과학분야의 진전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적 관행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성은 하나의 체계로 간주되는 개인의 심리생물학적 세계"로 인식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인성에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은 생물학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행위경향을 갖는다"(키징 1985: 130-132). 따라서 학문공동체 내에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고, 學際性보다는 統合性이 궁극적인 학문공동체의 목표라는 생각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인류학의 경향이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로 이전되고 있는 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인류학자들에 의한 인간발달이라는 주제는 수단의 차원이 아니라 목적의 차원에서 연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싶다. 인간과 유인원에 대한 생물학적인 차원의 연구결과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발달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인간발달 그 자체가 연구목적인 인류학자가 있다면, 그는 현지연구에 의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長期連續硏究(longitudinal research)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침팬지나 고릴라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침팬지나 고릴라 그 자체에 대한 장기연속연구를 수행한 제인 구달(Jane Goodall)과 조지 샬러(George Schaller)의 연구들이 인간발달에 관한 장기연속연구의 선행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몇 사람 또는 한 집단에 대해서 인간의 생애사 주기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현지에 체류해야하는 장기연속연구에 의한 인간발달의 과정이 이해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간에 관한 통합적인 학문을 人間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면.

참 고 문 헌

전경수 (1994). **문화의 이해**. 서울 : 일지사.

키징 (1985). **현대문화인류학**. 서울 : 현음사(전경수 역).

Barnouw, Victor (1979). *Culture and Personality*. Homewood, Ill. : The Dorsey Press.

Benedict, Ruth F. (1934). *Patterns of Culture*. Boston : Houghton Mifflin.

_____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 Houghton Mifflin.

Bock, Philip K. (1980). *Continuitie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San Francisco : W. H. Freeman & Co.

Du Bois, Cora (1944). *The People of Alor : A Socio-Psychological Study of an East Indian Island*.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reeman, Derek (1983). *Margaret Mead and Samoa : The Making and Unmaking of an Anthropological Myth*.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Garbarino, Merwyn S. (1983) *Sociocultural Theory in Anthropology : A Short History*. Prospect Heights, Ill. : Waveland Press.

Honigmann, John (1967). *Personality in Culture*. New York : HRP.

Kardiner, Abram & Ralph Linton (1939). *The Individual and His Socie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Kluckhohn, Clyde, Henry Murray, & David Schneider(eds.). (1953)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2nd. rev. ed.). New York : Alfred A. Knopf.

Kroeber, Alfred (1917) "The Superorganic", *American Anthropologist 19*, 163-213.

Linton, Ralph (1945).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New York : Appleton-Century.

Mead, Margaret (1928). *Coming of Age in Samoa : A Psychological Study of Primitive Youth for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 William Morrow.

_____ (1930) *Growing Up in New Guinea*. New York : William Morrow.

_____ (1935)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 William Morrow.

Sapir, Edward (1949). *Culture, Language and Personalit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Whiting, John & Irvin Child (1953).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 : A Cross-Cultural Stud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人間發達研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4. Vol. 1, No. 1, *25−38*

Culture and Personality Studies for the Human Development Research

Kyung-Soo, Chun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focus on introducing the historical trends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dealing mostly with personality and child training and, furthermore, on providing a reasonable ground for the specialists on human development studie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the anthropological research for the human development studies. From the anthropological standpoints, the two opposing matters of 'culture or personality' has not been the question of the either-or because anthropology has been sharing the generic idea of the 'gestalt' with psychological approaches. This is the firm ground of the 'culture and personality' study. This author hopes to expect that anthropologists will be more interested in the area of human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ends(not the means) of the anthropological research. Primatelogy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facing between anthropology and human development research.

Key Words : culture and personality · human development · psychological anthropology · cross-cultural comparison · child training

토론 : 인간발달 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방법의 적용과 한계

김 광 웅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토론자 본인이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의 내용이 人類學 內的인 것이 되지 못하고, 인간발달연구를 위해서 인류학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발표자는 우리가 중심 과제로 삼고 있는 "인간발달"이 인류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인류학의 흐름 속에서 다루어져 왔는가를 비교적 소상하게 그리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또한 인간발달과 가장 깊이 관련되는 인류학 분야인 "문화와 인성" 학파가 현재 갖고 있는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인 약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해주었다.

발표자의 제안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은 토론자가 공감하며, 돋보이는 부분이다.

첫째는, 인간발달연구의 학제성 보다 통합성을 강조한 방법론적 제안이다. 학제성은 당면한 (연구)문제에 대해 관련 학문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교류하며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수준으로서, 각 학문간의 벽과 간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그러나, 통합성은 학문의 벽을 넘어서 공동의 노력이라는 뜻, 즉 인류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등을 하나의 개인차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학문 통합적 접근은 인간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인간,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30년대 Gordon Allport가 Harvard에서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을 종합하기 위해 "사회관계학과(Department of Social Relations)"를 설립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둘째는, 인간에 관한 통합적 학문으로서 "人間學"을 제안한 것인데, 이는 인간발달연구의 통합성의 실현에 따른 자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토론자가 人間學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이유는, 人間學에서의 「人間」은 어느 다른 학문에서의 경우보다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가 더 소중하게 다루어질는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점을 시사한 바 없지만, 인간학에서는 인간을 통합된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만일 그렇다면, 인간행동의 과학적 이해(심리학), 사회 속의 인간(사회학), 문화 속의 인간 또는 인간을 통해서 본 문화(인류학)의 경우보다 "人間的"일 것이라는 낭만적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셋째는, 인간발달이라는 주제를 인류학의 수단 차원이 아니라 목적의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발표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상당한 가능성과 실현성이 큰 전망으로 여겨진다. 인간발달을 과정으로 보고, 이미 George Schaller나 Jane Goodall의 유인원 연구가 장기연속연구(아마도, 발달연구에서 종단적 연구에 해당되는)로 수행된 사례가 소개되는 것을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인류학에서는 문화를 이해하거나 문화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동기나 사춘기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간발달 자체를 목적으로 상정하고 '문화와 인간발달'을 하나의 틀 속에서 연

구한다면, "문화와 인성"학파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되겠지만,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고무적인 전망과 함께, 토론자는 몇 가지 의문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결어 뒷부분에 "인류학의 경향이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로 이전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인류학 이외의 학문에서 인류학으로부터 얻는 가장 큰 소득의 하나는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인간의 모습에 관한 지식들이다. 문화의 특수한 측면과 인간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주관심이 인간행동의 보편성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회가 이 보편성에서 벗어날 때, 또는 상호 비교되는 인간발달 현상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변수는 문화적 차이나 문화의 특수성이다. 문화적 차이나 문화의 특수성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면 인류학의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인류학에서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을 버린다면, 낭패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의 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할 때 독특하고 특수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이에 관한 연구에 인류학의 적극적 관심이 요망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란, 현재 상당히 서양화된 어정쩡한 문화뿐 아니라, 전통적인 고유의 문화, 우리의 심성과 행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 Carl Jung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우리 문화의 독특한 측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인류학적 지혜가 동원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근래, 아주 순수하고 정당한 의미에서 한국적인 것을 만들려는 학문적 의지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 문화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막연한 보편성을 지나치게 신봉하거나, 남의 것(특히 서양의 것)을 그냥 내 것으로 일반화시키려는 무모함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바로 이 과업의 성취에 인류학이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인간발달에 관한 인류학적 이해와 통찰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전 교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친다.